

2016 N_FORUM

비영리, 위기인가? 기회인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 융합과 협업을 통해
비영리의 미래를 모색한다

2016. 07. 21. (목)
AW컨벤션센터

2016 N_FORUM

비영리, 위기인가? 기회인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 융합과 협업을 통해
비영리의 미래를 모색한다

주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주관 2016 N_FORUM 위원회
후원 아산나눔재단

모시는 글



최장열

2016 N_FORUM 위원장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기획실장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2기 수료생

대학 졸업 후 20여년. 돌이켜보니 참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달음박질 했습니다. 젊은 시절 “꼴찌도 괜찮은거야”를 불렀던 저의 모습은 허상이었나 싶습니다. 꼴찌도 괜찮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남보다 앞서려고 내달렸던 어리석은 제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그려집니다.

몇 년 전 지역사회복지관 관장을 했습니다. 처음 개관한 복지관이기에 전 직원이 머리를 맞대고 약 6개월 동안 복지관의 비전과 미션을 만들었습니다. 복지인생 처음으로 방향을 정하고 열심히 달렸다고 생각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 즈음 ‘사회복지기관장이 복지인생의 마지막인가?’ 라는 고민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맴돌았고 때마침 관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운 좋게 만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아파(AFA, 2기들의 애칭)를 통해 인생 후반기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동문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한 N_FORUM은 제 인생 후반기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2015 N_FORUM에서는 비영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우리 모두가 다같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니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분들을 동료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16 N_FORUM에서는 ‘비영리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묻습니다. 비영리 내부의 시각뿐 아니라 다른 영역의 목소리까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 융합과 협업을 통해 위기와 기회를 뛰어 넘는 비영리의 미래를 모색해 볼 것입니다.

이제 걸음마 단계인 N_FORUM이 비영리 분야에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소리 없는 외침이 제 귓가에 크게 울립니다. 더 나아가 “글로벌은 다보스포럼, 비영리는 N_FORUM”이라고 외칩니다.

2016 N_FORUM은 접수 개시 하루 만에 100명이 넘는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N_FORUM의 시너지가 비영리 전체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N_FORUM은 우리가 보고 뛰어야 할 나침반이자, 앞으로 비영리가 도모해야 할 사회를 보여 줄 것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6 N_FORUM에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N_FORUM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지금 바로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를 하고, 환한 미소로 동료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2016 N_FORUM은 이렇게 인사로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2016 N_FORUM

비영리, 위기인가? 기회인가?

Plenary Session		비영리, 위기인가? 기회인가?
14:00 ~ 14:40	기조강연	· 연사: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14:40 ~ 15:30	오픈토크	· 사회: 양원석 푸른복지사무소 소장 · 패널: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Breakout Session		새로운 지식과 기술, 융합과 협업을 통해 비영리의 미래를 모색한다
	NEW 모금	모금환경의 변화, 비영리는 어떻게 새로운 방식을 찾을 것인가? · 내용: 재원조달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 · 패널: 김재춘 가치융합경영연구소 소장 최동철 와디즈 부사장 황진솔 더브릿지 대표
15:50 ~ 17:10	NEXUS 융합/협업	융합과 협업의 시대, 비영리는 누구와 어떻게 협업을 해야 하는가? · 내용: 외부 자원의 융합과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패널: 정희선 한국자원봉사문화 사무총장 최진 KPR 사회공헌 총괄 디렉터 한상엽 SOPOONG 대표
	KNOWLEDGE 기술/지식	새로운 기술과 지식, 비영리는 어떻게 유용하게 적용할 것인가? · 내용: 비영리 분야의 새로운 기술, 지식 적용 사례와 발전 방향 모색 · 패널: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 형용준 Makewith 대표
17:20 ~ 17:50	랩업 및 오픈토크	· 패널: 김재춘 가치융합경영연구소 소장 정희선 한국자원봉사문화 사무총장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

Plenary Session

비영리,
위기인가? 기회인가?

기조강연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오픈토크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양원석 푸른복지사무소 소장 | 사회자

KEYNOTE



■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 상임이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前 강남구자원봉사센터 부장
前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사업협력부장

우리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지나고 있다. 기존의 세 차례 산업혁명과는 달리 사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불확실성은 커지고 구조는 복잡해지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의 연결은 더 촘촘해지고 그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이 불확실성 속에서 한편에서는 엄청난 가능성으로 기회를 갖고, 다른 한편은 소리가 없이 사라진다. 이런 현상은 비단 영리 분야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 활동의 터전인 비영리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은 개별 조직뿐 아니라 시민사회 전체의 존폐에도 영향을 끼친다.

불확실한 환경에서 변화와 혁신의 대상이 될 것인가? 주체가 될 것인가? 비영리 분야가 이를 먼저 내다보고 지혜롭게 대응한다면 사회문제 해결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바람이 일고 그 다음에는 태풍이 온다. 파도가 일고 그 다음에는 해일이 몰아친다 - 앤디 그루브(1996)

N FORUM
2016
CONNECTING FOR IMPACT



■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설립, 이사장

前 사회연대은행 설립, 대표
前 대통령자문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위원
前 웨스트팩은행 이사

많은 사회문제들이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 노력하지만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 비영리 민간 조직의 역할에 기회와 희망이 있다. 그러나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비영리조직의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현대 사회의 문제가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접근 방식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문제가 복잡하듯이 해결방식도 금융, 경영 등 시장적인 방법들이 융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비영리가 이러한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추어 변화하고 물질·인적 능력을 준비해 간다면 무너진 사회공동체를 회복하고 다양한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OPEN TALK



■ 양원석

푸른복지사무소 운영
 푸른복지출판사 운영
 복지기관(복지관, 아동양육시설) 컨설팅

위기라고 무작정 될 수 없다. 방향이 있어야 한다. 비영리가 앞으로 도모해야 할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과연 가슴 뛰는 비전이 있는가? 문제 수습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가?

비영리가 직면한 문제는 전 지구 단위지만, 대응은 지역 단위다. 문제는 복잡하지만 대응은 부분적이다. 그만큼 융합과 협력이 필요한 때이다. 그리고 이 융합과 협력은 서로 다른 주체가 만나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 비영리의 고유성이 없다면 '융합과 협력'은 '흡수와 통합'으로 귀결될 지도 모른다.

그럼, 비영리는 어떤 고유성을 가지고 융합과 협력을 해야할까? 이 질문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Plenary Session

비영리,
 위기인가? 기회인가?

Breakout Session

새로운 지식과 기술, 융합과 협업을 통해
비영리의 미래를 모색한다



NEW



NEXUS



KNOWLEDGE

모금환경의 변화, 비영리는 어떻게 새로운 방식을 찾을 것인가?



NEW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의 모금기법은 더이상 기부자들을 감동시키지 못한다. 장기화된 경기불황으로 기업도 공간을 닫고 개인도 지갑을 열기 어려운 시대이다. 비영리는 어디서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

크라우드 펀딩, 임팩트 기부 등 투자와 기부가 결합된 새로운 모금트렌드를 알아보고 성공적인 활용사례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한 방식의 '비영리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고민해 본다.



■ 김재춘

가치혼합경영연구소 소장
Social Muscles for Change 대표
한국모금가협회 운영위원

前 서울특별시장 대외협력보좌관
前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이사



■ 최동철

크라우드펀딩 와디즈 비즈니스 총괄 부사장
경기도 창업기업 멘토위원

前 LG생명과학 경영전략실/신사업팀



■ 황진술

더브릿지 대표

前 Eco-Frontier 선임 컨설턴트
前 UN Global Compact 근무

융합과 협업의 시대, 비영리는 누구와 어떻게 협업을 해야 하는가?



NEXUS

비영리조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문제와 위기는 아주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에 단순한 열쇠로 해결할 수 없다. 영역을 넘나드는 창발적인 융합과 협업이 필요한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융합과 협업을 해야 하는가? 융합과 협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새로운 방식의 자원 연계, 융합과 협업을 통해 이 시대가 비영리에게 던지는 도전에 맞설 전략과 기회를 모색해본다.



■ 정희선

한국자원봉사문화 사무총장

前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소장
前 볼런티어21 사무국장
前 IYV2001한국위원회 사무국장
前 삼성사회봉사단 근무



■ 최진

KPR 사회공헌 총괄 디렉터

前 아름다운가게, 유니세프 등 사회공헌홍보 컨설팅
前 아모레퍼시픽, CJ등 다국적기업 제품
마케팅 PR 기획 및 실행



■ 한상엽

소셜벤처 인큐베이터 SOPOONG 대표 위즈덤 창업자, 이사

前 대우인터내셔널 근무
前 넥스터스 설립자, 대표
前 몽크 설립자, 대표

새로운 기술과 지식, 비영리는 어떻게 유용하게 적용 할 것인가?



KNOWLEDGE

산업혁명이 인간의 근육을 대신했고, 정보기술혁명이 인간의 뇌를 대신할 것이라는 전망속에서 비영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변화를 따라가야 할까?

디지털과 아날로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공존하는 시대에 우리에게 유용한 지식과 기술은 무엇인지,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기술의 융합을 통해 영리한 비영리를 찾아본다.



■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

前 삼성복지재단 근무
前 (사)아이들과미래 창립멤버



■ **형용준**

Makewith 대표

前 싸이월드, 세이큐피트, 쿠크박스 등 창업
前 네이버 신규사업 부문 수석

2016 N_FORUM 위원회

최장열 (위원장)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기획실장	2기
임진기	前 월드휴먼브리지 사무국장	1기
홍원준	조선비즈 지식사업팀장	1기
김동엽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실장	2기
강예든	위스타트 과장	3기
백정은	사단법인 정다우리 과장	3기
송미령	고양YWCA 사무총장	3기
윤영미	(사)한국자원봉사문화 부장	4기
전해진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센터장	4기

아산나눔재단



아산나눔재단은 2011년 10월 故 아산 정주영 현대 창업자의 서거 10주년을 기념하여 출범한 공익재단입니다.

아산의 도전, 창조 정신을 계승한 '앙트러프러너십'(Entrepreneurship) 확산을 위해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가정신이 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터 성인을 아우르는 기업가정신 교육 사업을 시작으로 사회혁신가를 육성하는 아카데미 사업, 비영리기관을 지원하는 파트너십 사업, 예비 창업가를 발굴하여 창업 인프라를 제공하는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 배움과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꿈을 현실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사람의 손을 끌어주고, 잘하고 있는 사람은 더 잘하게 만들어 미래를 능동적으로 개척하는 역량 있는 전문가를 키우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VISION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세상

MISSION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업가와 사회혁신가가 도전하고 성장하고 나누는 기반을 만듭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국내 비영리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비영리 차세대 리더인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통합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차세대 비영리 리더를 위한 전문 교육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국내 비영리 분야의 차세대 리더 육성을 위해 비영리 경력 5년 이상의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비영리 경영(전략, 인적자원, 마케팅·모금, 재무·회계)과 리더십, 사회혁신, 캡스톤 프로젝트로 구성된 통합적인 교육을 통해 수강생들은 비영리기관 운영과 발전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함양하며 비영리 리더로서 한 발 나아가게 됩니다. 교육과정은 단순 강의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사례 학습과 토론, 캡스톤 과정, 해외방문연구조사 등이 있습니다.

비영리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공유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지속적으로 교육 커리큘럼과 콘텐츠를 연구·개발하며 현장과 공유 함으로써 국내 비영리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비영리 경영 교재와 현장 사례를 개발하고 있으며 해외방문연구조사를 통해 습득한 해외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종사자 네트워킹 도모

2013년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해마다 새로운 기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 봄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4개 기수, 총 97개 기관에서 119명이 아카데미를 수료하였으며 아카데미 동문들은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함께 네트워킹 활동을 통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인 'N_TALK'는 매월 진행되고 있으며 비영리 활동가들이 주요 사회문제를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N_FORUM'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CONTACT US

02. 741. 8234

nforum@asan-nanum.org

www.asan-nanum.org

www.facebook.com/TheAsanNanum

blog.naver.com/asan_nanum



IN FORUM
2016
CONNECTING FOR IMPACT